

“자리 연연 안해...초선 간담회 후 결정”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

초·재선 잇단 회동 당 수습 논의

원내대표 선출까지 내홍 이어질 듯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선 의원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초·재선 의원들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당내 내홍을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당내 의원 모임 중 처음으로 ‘더좋은미래(더미래)’가 전날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집단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파열음이 확산하는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초·재선들과의 화동이 이번 사태의 기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재선 의원들과 만나 자신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도 윤 비대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현시점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옹호론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구성 과정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면서 긴급한 비대위 구성 과정상의 특성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또 마무리 발언에서 “자리와 권한에 연연해본 적 없이 정치를 해왔다”면서 “이후에도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쿨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준비와 당의 쇄신을 동시에 하면서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한 각종 협상과 인사정문화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당 지도부가 (비대위원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오후에는 초선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한다.

초선 의원 가운데에도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의문을 표하는 인사가 적지 않은 만큼 내홍 국면을 넘어갈 수 있을지 가능성 고비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재선의원 면담에서 “오후에

초선의원들 간담회까지 한 뒤에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고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집단으로 윤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지는 않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다.

나아가 내주 새 원내대표 선출이 있는 만큼 ‘윤호중 비대위 체제’ 유지 문제가 원내대표 선거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적어도 새 원내대표 선거 때까지는 비대위 문제를 놓고 내홍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채이배 ‘문대통령 반성’ 발언 사과하라”

靑 출신 국회의원들

청와대에서 일했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7일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사에 반성이 담겨야 한다’고 언급한 채이배 비상대책위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공동성명을 내고 “선거에 필요할 때는 너도나도 대통령을 찾고, 당이 어려워지면 대통령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이 채 위원이 생각하는 ‘좋은 정치’ 입니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평가는 누군가를 내세워 방패막이 삼거나, 지난 시기를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규정하는 단순한 사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런 점에서 채 위원의 처신은 갈림길에 선 당의 진로를 고민하는 비상대책위원의 인사로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 비대위에도 요구한다. 선거 패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위한 치밀한 프로그

램을 비대위가 나서 하루빨리 마련달라”며 “그것이 지금 비대위가 해야 할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 성명에는 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민형배, 박상혁,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이상섭, 정태호,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 의원이 참여했다.

특히 이 가운데 채 위원을 비대위에서 사퇴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형배(광주 광산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광주 현직 비대위에서 나온 채이배의 발언은 참기 어렵다”며 “이런 말들을 제어할 수 없다면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자격 미달이다. 채이배 위원을 즉각 내보내라”고 주장했다. 채 비대위원은 전날 광주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기록권이 가장 강한 호남에서부터 기록권을 내려놓는 혁신을 해야 한다”며 “호남에서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진정한 지역 일꾼을 뽑도록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내려놓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6·1 지방선거 라운지

최치현 전 청와대 행정관, 광산구청장 출마 선언

최치현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17일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전 행정관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선 5기와 6기 광산구 열린민원실장으로 고집적인 갈등, 첨예한 대립을 조정·해결했고,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거치면서 중앙정치와 대한민국 최고 행정을 익히고 훈련했다”면서 “일을 가장 잘 해결할, 광산구 대표 일꾼의 자격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광산’을 더 참신하게 만들 7대 핵심



공약으로 ▲공공부문탄소중립 실현 ▲강과 함께 더 청정하고 행복한 광산구 ▲주민자치 역량 회복 통한 민주주의 토양 조성 ▲문화·체육·교류 인프라 개선 ▲확대 ▲‘위드 코로나’ 시대 지역정부 지원 새 모델 제시 ▲도·농복합 다문화도시 광산구의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약속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서재원 민주 정책위 부의장, 강진군수 출마선언

서재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겸 국무총리 자문위원은 17일 강진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서 부의장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존경하는 강진군민과 함께 더 잘 사는 강진, 머물러 살고 싶은 강진, 대화합의 강진을 만들고자 강진군수 출마를 결심했다”며 “힘찬 경제, 자녀교육 걱정 없는 군민복지 1번지, 활력 문화예술·관광·체육, 소통 행정 실현 등을 핵심공약으로 강진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진은 현재 고소 고발, 검찰수사 등으로 군민들의 마음이 깊은 상처로 응어리져 있는 등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준비되고 유능한 정치가가 필요하다”면서 풍부한 지방정치 경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긴밀한 소통이 가능한 본인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혜자 광주교육감 후보 후원회장 맡아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17일 박혜자 예비후보에 따르면 정 전 총리가 박 후보의 광주시교육감 선거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후원회장을 맡았다.

박 후보는 “정세균 전 총리께서 공동후원회장을 흔쾌히 수락해주셨다”며 “정 전 총리의 성원에

힘입어 6월 1일 광주시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치한 광주교육을 새로 고지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전북 무주·진안·장수에서 올 종로에서 6선 국회의원국회의장을 역임했고, 오는 18일에는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의 신입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강기정 “지역발전 공약 인수위 통해 국정과제 넣어야”

“권력 교체기 중앙정부·네트워크 활용 정무적 리더십 필요”

오는 6월 1일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광주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정치세력, 여야 또는 중도에 계시는 정치세력을 포용해 ‘범 정치세력 기획단(TF)’을 구성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강 전 수석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력 교체기에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지역 발전 공약을 인수위를 통해서 국정과제로 집어넣는 것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된 사업이 지역의 판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 5년 과정에 피부로 느꼈다”면서 “광주시가 새정부 국정과제 대책단을 구성한 것으로 잘한 것이지만, 행정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와 여·야를 넘나드는 현역 국회의원, 현직을 넘는 분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시대로 접어드는 권력 교체기에는 여야를 넘는 등 소위 입법부를 넘어 중앙정부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무적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다”면서 “정무적 리더십을 훈련받고 실현했던 사람이 (청와대 전) 정무수석 강기정”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런 대선 패배 원인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한 지방선거 공천을 막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만약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수많은 화살이 날아온다면 그 화살을 정당하게 맞을 준비가 돼 있고 그 화살은 자랑스러운 화살이 될 것이다”면서 “이번 대선 평가는 헬스 정치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그건 정치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문 정부 책임론, (문 대통령이) 윤 당 선자를 키워준 책임론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라면서 “그 책임이 있는 것과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구별하지 않고 목욕물에 휩쓸려 버리는 것은 정확한 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으로 일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전공대를 만들고 광주 AI단지를 실현하고, 심혈관 센터 작공, 달빛내륙철도 반영 등은 큰 성과”라고 덧붙였다.

광주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사람의 준비, 정책의 준비,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서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 상처가 아물면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시점, 다음주 초 후보 등록과 광주시를 위한 도전을 선언하겠다”고 했다.

일부에서 퇴진 요구가 나오는 윤호중 비대위에 대해서는 “의총을 통해 청년, 세대, 지역, 여성 등의 확인을 받고 공감대를 모아 통과한(꾸러진) 사항”이라며 “(의총 등에서) 확인하고 확정된 비대위를 가지고 새삼스럽게 다시 구성해야 한다. 이제 명 후보가 일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 등판론에는 “치유할 시간을 줘야 한다. 생각할 시간을 줘야 한다”면서 “내적 다짐을 하는 시기를 주지 않고 ‘이 후보를 일선으로 불러야 한다’, ‘비대위원들을 교체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와 밀고 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